

20세기 전반기 색채어에 대한 사전 기술의 변화 과정

응웬 티 뚜엣 닝

1. 서론	차례	3. 뜻풀이 양상
2. 표제어의 목록		4. 결론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국어 사전을 대상으로 하여 색채어에 대한 사전적 기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전반기는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전환기이자 근대적 사전이 편찬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간행된 사전에 대한 분석은 사전학사적, 그리고 어휘사적 의미가 깊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국어사전 중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0), 이윤재 저·김병제 편 『표준조선말사전』(1947), 조선어학회 편 『조선말큰사전』(1947-1957)을 연구 자료로 삼는다. 색채어는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의 오방색으로 한정하며, 각각의 색상 부류를 나타내는 색채형용사와 색채명사 표제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각 사전의 표제어를 조사하여 5개 색상 부류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추출한 뒤 해당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론이다. 각각의 사전에 실린 색채어들을 분석한 뒤 세 사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여 20세기 전반기 색채어에 대한 사전적 처리의 변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현대국어 어휘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근대의 국어사전들 간의 영향 관계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색채형용사와 색채명사의 어휘사적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천착하고자 한다.

[주제어] 20세기 전반기, 색채어, 색채 형용사, 색채 명사,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표준조선말사전, 조선말큰사전

1. 서론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국어 사전인 문세영 편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0) 이윤재 저·김병제 편 『표준조선말사전』(1947), 조선어학회 편 『조선말큰사전』(1947-1957)을 중심으로 하여 등재된 색채어에 대한 사전 기술을 분석하고 이 사전 기술의 변화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최초로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한국어로 풀이한 근대적 사전들이 발행되었고 해당 사전들의 뜻풀이는 오늘날의 국어사전에까지 계승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초창기 한국어 사전들의 뜻풀이 양상 및 사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사전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각 사전의 서지적 특징을 기

술하는 데에 그쳐 있을 뿐 사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문세영 편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0)과 조선어학회 편 『조선말큰사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보통 계량적 연구이고 『표준조선말사전』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진한 현황과 달리 이들 사전은 어휘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는 사회문화적 격변기였던 만큼 어휘의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들 사전은 당시의 어휘 사용 양상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색채어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 볼 때 많은 연구가 사전에 뜻풀이된 색채어 정의를 활용하여 의미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색채어에 대한 사전 기술과 같은 사전학적 연구는 드문 편이다. 또한, 많은 논의에서 후기 중세국어, 근대국어,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색채어의 형태, 의미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근대와 현대의 전환기인 20세기 전반기를 많이 간과하여 이 시기에 색채어의 출현 양상과 의미 분화 양상들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색채어의 사전적 기술을 분석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물론 형태론적 어휘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먼저, 표제어 목록의 차이와 이표기 수록의 차이를 통해 사전간의 표제어 선정 기준에 대한 차이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채어의 출현 양상, 당시의 음운현상이나 표기 양상, 그리고 형성 과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뜻풀이 기술의 차이를 통해 사전 간의 뜻풀이 기술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색채어간의 의미 분화 양상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색채어에 대한 사전적 기술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3종 사전을 주요 연구 자료로 삼고 그 전에 편찬된 국어사전인 조선어총독부(1917?) 『조선어사전』 원고와 조선광문회(1915~미발행) “말모이” 원고, 그리고 이중어사전인 게일(1931) 『한영대자면』을 보조 연구 자료로 삼는다¹. 색채어는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의 오방색으로 한정하며, 각각의 색상 부류를 나타내는 색채형용사와 색채명사 표제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각 사전에 실린 색채어 표제어의 목록과 뜻풀이의 기술을 분석하여 사전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사전적 기술의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 2장에서 각 사전에 수록된 색채 형용사와 명사 표제어 목록과 주표제어와 가표제어에 대한 처리를 살펴보아 사전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사전적 기술의 변화 과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이러한 표제어들의 뜻풀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서로 영향 관계를 밝혀 사전적 기술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2. 표제어의 목록

2.1. 형용사

각 사전에 등재된 색채 형용사 표제어 목록과 주표제어-가표제어 처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표제어의 표기에 있어서 『조선어사전』 원고와 『한영대자면』에 수록된 표제어의 표기를 살펴볼 때 거의 모든 표제어의 어간과 어미의 경계는 “~타”와 같은 연철 표기로 표기되고

¹ “말모이” 원고에는 흑색류 색채 형용사와 색채 명사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만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중어사전인 『한영대자면』은 대역어로 뜻풀이하기 때문에 표제어의 목록을 분석하는 데에서만 활용하겠다.

적색류와 흑색류에 어근과 파생 접미사의 경계는 “밝아타”, “감아타” 등과 같은 분철 표기로 되었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 수록된 표제어의 표기를 살펴볼 때 주표제어의 표기가 모두 통일된 특징이 있는데 어간과 어미의 경계는 분철 표기로 표기되고 적색류와 흑색류에 어근과 파생 접미사의 경계는 연철 표기로 표기되었는데 『조선어사전』 원고와 『한영대자면』과 정반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사전들이 편찬된 시기를 고려하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이 발표되기 전에 간행된 사전과 발표된 후에 간행된 사전들이다. 전자는 『조선어사전』 원고(1917?)와 『한영대자면』(1931)에 해당되는데 이 사전들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이 발표되기 이전에 발행된 사전들이므로 표제어의 표기가 표준 표기에 비해 다른 특징이 있다. 후자는 『조선어사전』(1938)과 『표준조선말사전』(1947)과 『조선말큰사전』(1947~1957)에 해당되는데 이 사전들에 등재된 주표제어는 표기가 통일되고 표준어가 통일된 특징이 있다.

한편,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 등재된 주표제어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적색류와 황색류 표제어에 확인되었다. 먼저, 적색류에 있어서 『표준조선말사전』에 “뿔다” 어형을 수록하여 주표제어로 등재되었지만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 확인되지 않아 차이가 났다. 황색류 주표제어 목록에 차이가 있는데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는 기본형과 파생형이 모두 주표제어로 등재되었지만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는 기본형 “누르다”와 파생형 “노랄다”가 주표제어로, 남은 “노르다”와 “누럴다”가 가표제어로 등재되었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당시에 파생형 “노랄다”가 기본형 “노르다”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사전들에 수록된 가표제어에 있어서 간행된 3종 사전들은 모두 당시에 발표된 표기법에 어긋난 이표기들을 수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색류를 예시로 하자면 다음과 같다².

<표 1> 청색류 표제어 목록

구분	『조선어사전』 원고	『한영대자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표준조선말사전』	『조선말큰사전』
푸르다	○	○	○	○	○
파라타	○	x	△	△	x
퍼러타	○	x	△	△	x
푸럴다	x	x	x	x	△
파랏타	x	○	x	x	x
퍼럿타	x	○	x	x	x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표준조선말사전』에서는 『조선어사전』 원고에 등재된 주표제어인 ‘파라타’와 ‘퍼러타’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표기 수록은 청색류뿐만 아니라 남은 적색, 황색, 백색, 흑색에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선어사전』 원고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인다. 또한, 흑색 표제어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가~갈죽”부분만 남아있는 “말모이” 원고에 ‘감다’와 ‘감알다’ 표제어를 확인하였는데 이 어형은 이후에 간행된 3종 사전에 두루 가표제어로 수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은 “말모

² 이 표에서 옛말 정보를 제외한 표제어들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은 이표기를 많이 수록한 반면에 『조선말큰사전』은 이표기를 수록하였지만 청색류, 백색류, 흑색류만 수록했고 오히려 옛말을 보다 많이 수록한 점에서 차이가 났다. 『조선말큰사전』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보다 규모가 커졌으나 보다 이표기를 많이 수록하지 않은 것은 사전의 간행 연도를 살펴보면 표준어 의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모음이 곧 발표된 시기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표준어 보급용으로서 최대한 잘못된 표기와 비표준어를 수록하여 표준어로 연결시키는 역할이 컸다. 반면에 『조선말큰사전』이 발행될 때에 와서 표준어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어 표기 통일이 점진적으로 달성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비표준어를 줄이고 옛말 등과 같은 표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옛말 수록에 있어 사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 “붉다”의 옛말인 “붉다”를 수록하였고 『표준조선말사전』에서 옛말을 아예 수록하지 않았으며 『조선말큰사전』에서 청색류, 적색류와 백색류의 옛말들을 수록하였다. 옛말 수록 기준에 대해 각 사전의 “일러두기”에서 언급하였는데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는 당시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수 있는 옛말만 수록한다는 기준이 있는 데에 반해 『표준조선말사전』에서는 옛말을 수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조선말큰사전』에서는 옛 표기를 가진 옛말을 수록하였다고 밝혔다.

2.2. 명사

본 절에서 근대적 사전에 수록된 색채 명사 표제어의 목록을 비교하였다. 모든 사전에 백색류 명사가 수록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백색류 명사가 파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색채 명사 표제어의 형태를 살펴볼 때 사전 간에 큰 차이를 보았다. 다음은 청색류 표제어 목록을 예시로 사전 간에 있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청색류 명사 표제어와 품사 정보

구분	『조선어사전』 원고	『한영대조면』	『수정증보 조선어 사전』	『표준조선말사 전』	『조선말큰사전』
파랑	X	X	x	명, 관	명, 관
퍼령	명	명	명	명, 관	명, 관
푸령	X	X	x	명, 부	명

(비고: 명: 명사, 관: 관형사, 부: 부사, 'x': 미등재)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에는 음성모음형인 ‘퍼령’만 수록한 반면에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는 음성모음형인 ‘퍼령’뿐만 아니라 양성모음형 ‘파랑’과 원순모음형인 ‘푸령’도 모두 수록하였던 점에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그 전에 편찬된 사전들에서 황색류에 모음교체 쌍을 수록하고 남은 색채 부류에 음성모음형만 수록한 특징이 있다. 이와 달리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서 모음교체 쌍을 모두 수록한 경향이 있다. 특히 『조선말큰사전』에서 음소교체 쌍을 모두 수록하여 색채 명사를 제일 많이 수록하였다. 따라서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일수록 색채 명사를 더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는데 색채 명사의 색채 명사에 대한 사전적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색채 명사 수록에 대해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은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과 차이가 있는 것은 색채 명사의 형성과 정착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선영(2008)에서 근대국어에 오방색의 색채 형용사 파생형은 음성모음형인 ‘퍼러하다’, ‘프러하다’, ‘벌거하다’, ‘허여하다’, ‘거머하다’만 문증되었고 양성모음형인 ‘파라하다’, ‘발가하다’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대국어에서 색채 형용사의 음성모음형은 양성모음형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색채 형용사에서 파생된 색채 명사들도 음성모음형이 먼저 파생되고 많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들의 색채 명사 수록에 대한 변화 과정을 통해 표준말 선정 기준과 색채 명사의 형성 과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감정’의 주표제어와 가표제어 처리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말모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 주표제어로 등재한 반면에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사전』에서 가표제어로 등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표준어에 대한 의식의 차이인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조선말큰사전』에서만 ‘까망’류를 수록하였는데 이 어형은 『조선말큰사전』이 간행되기 전에 파생되지 않았거나 많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현희(1985)에서 ‘검정’과 ‘거머’가 파생접미사로 형성되지 않고 한 과정을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전에 수록된 목록을 감안하면 ‘까망’류는 ‘검정’류보다 훨씬 더 늦게 형성되었고 ‘-앙/영-’ 접미사에 의해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색채 명사 표제어의 목록을 보면 1910년에 편찬된 사전들에서 ‘퍼렁’ 어형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이병기(2002)에서 언급한 1910년대에 ‘노랑’만 확인되었다는 견해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전에 등재된 색채 명사의 목록을 통해 색채 명사의 형성 과정과 출현 양상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에 색채 명사에 대한 형태론적, 어휘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제어의 표기를 살펴보면 『한영대조년』에서 흑색류 명사인 “감정”과 “검정” 어형을 수록하여 남은 사전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색채 형용사 표제어와 같이 “맞춤법 통일안”의 발표 전과 후의 차이로 할 수 있다.

한편, <표 2>를 보면 사전에 기술된 표제어들의 품사 정보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선어사전』 원고, 『한영대조년』,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 음성모음형인 “퍼렁”만 수록하고 명사 용법을 가진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와 달리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서는 양성모음인 “파랑”과 음성모음인 “퍼렁”뿐만 아니라 원순모음인 “푸렁”도 수록하여 명사 용법뿐만 아니라 관형사 용법이나 부사 용법도 동시에 가진 것으로 기술하였다. 품사 기술에 대한 차이는 각 사전들의 문법 관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일어났는데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이 다른 문법 관점이 같고 이전에 편찬된 사전과 달랐음을 볼 수 있다.

3. 뜻풀이 양상

3.1. 형용사

각 사전에 등재된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색채 형용사 표제어는 주요 비유 대상에 의해 뜻풀이되거나 같은 계열에 속한 색채어에 의해 뜻풀이되었다. 먼저, 뜻풀이에 활용된 비유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³.

3.1.1. 비유 대상

사전에 활용된 비유 대상에 대해 전적으로 보면 『한영대조년』과 같은 이중어사전은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에서 비유 대상을 활용하지 않은 반면에 국어사전은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에서 비유 대상을 활용한 점에서 차이가 났다. 한편, 1910년대에 편찬된 『조선어사전』 원고에 등재된 ‘희다’의 뜻풀이에서 비유 대상을 확인하였는데 ‘희다’의 뜻풀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희다(活) 色이 靄과 如한 稱. (『조선어사전』 원고)

예문 (1)에서 볼 수 있듯이 ‘희다’의 뜻풀이는 국한문으로 기술되었는데 “靄”, 즉 ‘눈’이라는 사물에 비유되어 뜻풀이되었다.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에서도 이러한 비유 대상을 활용한 뜻풀이를 활용하였는데 보통 기본형 형용사의 뜻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조선말큰사전』은 뜻풀이에서 비유 대상을 제일 일관성 있게 활용하였다. 『조선말큰사전』은 유채색과 무채색에 속한 색채 형용사를 크게 나누어 비유 대상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였는데 유채색은 7원색의 “무지개”와 그 색깔을 띠는 사물을 활용하여 뜻풀이되었고 무채색은 그 색깔을 띠는 사물에 비유하여 뜻풀이되었다. 이는 남은 두 사전인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에 비해 더 체계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각 색채어의 뜻풀이에 활용된 비유 대상에 있어서 3종 사전 간에 청색류와 황색류에서 서로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색류의 ‘푸르다’의 뜻풀이에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연한 청색인 “개 하늘”과 진하고 광범위한 녹색인 “무성한 나무 잎”을 활용한 반면에 『표준조선말사전』은 청색인 “하늘”과 남색인 “쪽”을 활용하였고 『조선말큰사전』은 청색인 “하늘”과 남색인 “쪽”, 그리고 광범위한 녹색인 “풀”을 활용하였다. 이는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 활용된 비유 대상은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과 차이가 있고 『조선말큰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에 활용된 대상은 같았지만 『조선말큰사전』이 『표준조선말사전』을 보완한 측면도 있었다.

황색류에 있어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은 ‘노르다’의 뜻풀이에서 비유대상을 활용하지 않고 심지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가표제어로 처리하였다. 한편, 『조선말큰사전』은 “무지개”뿐만 아니라 “뿔쇠”, “금”과 같은 비유 대상을 활용하였으나 ‘누르다’의 뜻풀이와 똑같이 기술하였다. 이는 당시에 ‘노르다’는 교체 모음의 쌍인 ‘누르다’에 비해 출현 빈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컸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노랗다’의 뜻풀이에서 비유 대상을 활용하였는데 다른 사전은 ‘노랗다’의 뜻풀이에서 황색 계열에 속한 형용사를 활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노랗다’의 뜻풀이에 활용된 비유 대상은 “개나리꽃”인데 당시에 간행된 사전에 ‘개나리’의 뜻풀이를 보면 이 꽃이 띠는 색깔은 차이가 있었다. “말모이”(1915)원고와 『조선말큰사전』에 등재된 ‘개나리꽃’의 색깔은 누른 색인 반면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 등재된 ‘개나리꽃’의 색깔은 노란 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당시의 언어생활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한 반면에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은 “말모이”와 같은 이전에

³ 상징적인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는 ‘가~갈죽’부분까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에 활용된 비유 대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발행된 사전으로부터의 영향과 관습적 표현을 반응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랗다’가 의미 정착이 되어 있고 ‘노르다’보다 출현 빈도가 높으며 ‘노랗다’의 색깔을 대표하는 사물에도 변화가 있다고 추측된다.

3.1.2. 뜻풀이에서 활용한 색채 형용사

앞서 언급하였듯이 색채 형용사 뜻풀이 기술의 특성 중에 같은 계열에 속한 색채 형용사를 활용한 특성이 있는데 보통 [ADV + VA] 구조를 적용한 뜻풀이들이었다. 그 중에 “ADV”는 부사구나 정도부사에 해당하고 “VA”는 같은 색채 분류에 속한 형용사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3종 사전에서 이러한 색채 형용사 활용의 방식을 대부분 색채 형용사 파생형의 뜻풀이에서 적용하였는데 표제어별 활용된 “ADV”와 뜻풀이로 본 “VA”의 참조 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절에서 활용된 “ADV”와 색계열의 “VA”의 참조 관계로 나누어 비교하여 사전적 처리의 변화 과정을 밝힐 것이다.

1) 뜻풀이에 활용된 부사어

사전에 등재된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에 쓰인 부사어를 살펴보자 사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중에 1910년대에 편찬된 “말모이”는 “가말다”를 “퍽 감음”으로 뜻풀이하였는데 이는 뜻풀이에서 정도부사 “퍽”과 형용사인 “감다”를 활용하였음은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어사전』 원고에서 부사어를 활용하지 않고 대체로 한자 대역어로 뜻풀이하였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았다. 따라서 “말모이”는 이후에 간행된 국어사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사전에 활용된 부사어에 대해서 청색류의 “파랗다”와 “퍼렇다” 표제어의 뜻풀이를 예시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파랗다'와 '퍼렇다'의 뜻풀이

구분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표준조선말사전』	『조선말큰사전』
파랗다	진하게 푸르다.	아주 푸르다.	매우 푸르다.
퍼렇다	칙칙하게 푸르다.	지나치게 푸르다.	매우 푸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사전은 똑같이 “푸르다” 형용사를 활용하였지만 부사어를 다 다르게 활용하였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는 “진하게”와 “칙칙하게”와 같은 색채의 속성⁴

⁴ 색채는 ‘색상’, ‘명도’와 ‘채도’와 같은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정의한 ‘색상’, ‘명도’, ‘채도’는 다음과 같다.

가. 색상(色相): 색을 빨강, 노랑, 파랑 따위로 구분하게 하는, 색 자체가 갖는 고유의 특성. 색의 3요소의 하나로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파장의 차이에 의하여 달라지는데, 유채색에만 있으며 무채색과의 배합에 의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명도(明度):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색의 삼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활용하였다. 『표준조선말사전』에서는 정도부사인 “아주”와 정도성을 나타낸 부사구인 “지나치게”를 활용하였는데 『조선말큰사전』에서는 모두 정도부사인 “매우”를 활용한 점에서 각 사전 간에 차이가 났다. 다른 표제어들에게도 각 사전에 활용된 부사어가 이러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색채의 속성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정도성과 사람의 심리⁵를 나타내는 정도부사를 함께 활용하는 반면에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은 구체적이지 않은 정도성과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정도부사를 활용한 점에서 큰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을 비교해 보면 『조선말큰사전』은 『표준조선말사전』을 보완한 흔적을 보였다. 부사어가 아닌 의미가 불투명한 약물 기호 활용(뺨걸다, 노르다, 깎다)와 무분별한 정도부사 활용(아주, 몹시, 매우 등)과 같은 『표준조선말사전』에 남아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후에 간행된 사전은 이전에 간행된 사전보다 부사어를 더 체계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뜻풀이로 본 “VA”의 참조 관계

색채 형용사를 활용한 뜻풀이에서 [ADV + VA] 구조를 적용하였듯이 뜻풀이를 통해서 같은 색계열에 속한 색채어들의 참조 관계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뜻풀이를 살펴본다. 각 사전들에 기술된 “VA”의 참조 관계를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말모이”에 등재된 흑색 계열에 속한 양성모음인 ‘깎다’와 ‘가깎다’는 똑같이 “퍽 감음”으로 뜻풀이되었는데 즉, 뜻풀이에서 “감다”를 참조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VA”의 참조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 도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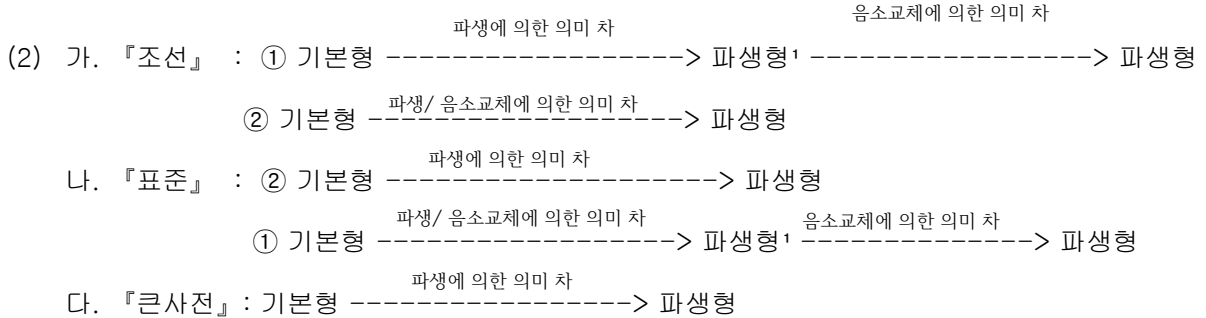
<그림 1> 뜻풀이로 본 흑색류 참조 관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감다’는 ‘깎다’와 ‘가깎다’의 뜻풀이에 참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쉽지만 “말모이”원고에 ‘감다’, ‘깎다’와 ‘가깎다’만 남아 있어 확인되었기 때문에 흑색류에 속한 다른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 양상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림 1>을 통해서 “말모이”에서 ‘감다’를 흑색 계열의 기본 색채어로 선정하여 다른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에서 활용한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채도(彩度): 색의 선명한 정도. 색의 삼요소 중의 하나로, 유채색에만 있으며, 회색을 섞을수록 낮아진다. (『표준국어대사전』)

⁵ 이승문(2000)에서 “정도부사는 절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화자의 주관이나 비교 기준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서 정도부사는 [비교], [긍정], [부정], [양], [강조]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정도의 차이와 화자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사전의 뜻풀이에 활용된 “몹시”와 “조금”, “매우”는 각각 [부정], [양], [강조]의 부류에 해당된다.

3종 사전의 뜻풀이에 활용된 색채형용사를 살펴보아 <그림 1>과 같은 도식으로 뜻풀이로 본 “VA”의 참조 관계를 정리해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각 사전에 적용된 색채 형용사 활용의 원칙은 조금씩 달랐는데 이후에 간행된 사전일수록 “VA”의 참조 관계가 더 일관되고 체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각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VA” 참조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색채 형용사 활용 원칙을 정리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예문 (2)는 각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뜻풀이에 쓰인 색채 형용사 활용 방식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①번 원칙은 기본형과 파생에 의한 의미 차를 활용해 파생형¹를 뜻풀이하고 파생형¹과 음소교체에 의한 의미 차이에 의해 파생형들을 뜻풀이하는 원칙이고 ②번 원칙은 색채 계열에서 하나의 기본 색채어를 선정하여 다른 색채어들을 뜻풀이하는 원칙이다.

(2가)를 보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두 가지 원칙을 섞어 뜻풀이하였는데 ①번 원칙이 앞에, ②번 원칙이 뒤에 배치되었다. 이는 ①번 원칙이 청색류를 제외한 색채 부류에 적용된 주요 원칙이었고 ②번 원칙이 청색류에만 적용된 원칙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사전은 색채 형용사를 뜻풀이할 때 파생에 의한 의미 차이보다 음소교체에 의한 의미 차이에 초점을 두어 색채어를 설명하는 원칙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나)를 보면 『표준조선말사전』에서 두 가지의 뜻풀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같았지만 ②번 원칙이 앞에, ①번 원칙이 뒤에 배치되어 두 원칙의 배치 순서에 차이가 있다. 『표준조선말사전』에 ②번 원칙은 거의 다섯 개의 색채 계열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요 원칙인 반면에 ①번 원칙은 적색류와 황색류, 흑색류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므로 일관되지 않았다. 이 사전에는 파생에 의한 의미 차이와 음소교체에 의한 의미 차이를 다 활용하여 뜻풀이하였는데 음소교체에 의한 의미 차이보다 파생에 의한 의미 차이를 더 많이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적색류에 이 두 가지 원칙을 섞어 기본형의 뜻풀이에도 적용되므로 의미적 순환성을 일으켰고 황색류에도 표제어를 뜻풀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뜻풀이가 순환적이었다.

(2다)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말큰사전』은 ②번 원칙만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즉, 이 사전에서 파생에 의한 의미 차이를 활용하여 색채 형용사를 뜻풀이하는 방식만 적용하였다. 하나의 기본 색채어에 의해 여러 가지의 파생형을 뜻풀이하기 때문에 각 파생형간의 의미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조선말큰사전』에서 파생에 의한 의미 차이와 음소교체에 의한 의미 차이를 따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는데 색채어간의 음소교체에 의한 차이는 뜻풀이가 아닌 참고어에서 기술하였다. 음소교체에 의한 차이는 의미 차이가 아닌 어감의 차이로 “큰말 - 작은말”, “센말”로 제시하였는데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조선말큰사전』의 뜻풀이 원칙은 3종 사전 중에서 제일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데 『표준조선말사전』에 부분적으로 적용된 ①번 원칙을 보완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색채 형용사를 활용한 뜻풀이를 살펴볼 때 사전적 기술의 특징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상징적인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는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 특히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사어와 색채 형용사 활용은 이후에 간행된 사전일 수록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색계열에 속한 색채 형용사를 뜻풀이할 때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은 파생에 의한 의미 차와 음소교체에 의한 의미 차를 구별하지 않고 정의한 반면에 이후에 간행된 『조선말큰사전』은 이러한 의미 차를 따로 구별하여 별도로 정의하였다. 특히, 참고어를 활용하여 음소교체에 의한 의미 차를 제시한 『조선말큰사전』은 이전에 간행된 사전보다 많이 달라졌고 오늘날 사전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2. 명사

3종 사전에 등재된 색채 명사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형태적 대응된 형용사와 “~빛”, 또는 “~빛이나 빛갈”이라는 메타술어를 활용하여 뜻풀이하는 방식은 주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뜻풀이에 쓰인 메타술어는 표제어의 의미 분석을 반영하는 것이고 형태적 대응된 형용사 활용은 그 색채 명사와 형용사의 참조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색채 명사 표제어의 의미 분석과 형용사와의 의미 참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2.1. 표제어의 의미 분석

색채 명사의 의미 기술은 편찬된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1910년대에 편찬된 국어 사전인 『조선어사전』 원고, “말모이”와 이중어사전 『한영대조연』에서 등재한 색채 명사의 뜻풀이를 보면 표제어의 의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어사전』 원고, 『한영대조연』에서 색채 명사를 ‘물감’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색깔로만 정의하였다. 단, 『한영대조연』에 등재된 ‘감정’의 뜻풀이를 감안해 보면 ‘감정’의 사용역도 제시되었는데 이전에 편찬된 “말모이”와 다르게 이후에 간행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표준조선말사전』, 그리고 『조선말큰사전』과도 달랐다⁶. 한편, “말모이”에 등재된 ‘감정’의 뜻풀이를 보면 색깔도, 물감도 아닌 물건으로 정의되었다고 할 수 있어 다른 사전들과 차이가 있다⁷.

한편,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 “~빛” 명사구를 기술하므로 색채 명사가 ‘색깔의 이름’으로 정의하였고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서 “~빛이나 물감” 명사구를 기술하기 때문에 ‘색깔이나 물감의 이름’으로 정의한 점에서 차이가 났다. 단,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 ‘검정’을 ‘색이름’과 ‘물감의 이름’의 의미를 따로 나누어 다의어로 처리하였던 점에서 다른 색채 부류와 차이가 있고 다른 사전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이전에 편찬된 사전에 대체로 ‘색깔의 이름’의 의미로 분석되었다가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 와서 ‘검정’을 유일하게 ‘색이름’의 의미와 ‘물감의 이름’의 의미를 구별하여 분석되었다. 그 후에 간행된 『표준조선말사전』에는 흑색류뿐만 아니라 청색류 명사도 ‘색이름’과 ‘물감의 이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선말큰사전』에 와서 등재된 모든 색채 명사가 ‘색이름’과 ‘물감의 이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으로 분석

⁶ 『한영대조연』에 “감정”은 “黑(검을-흑) Black_used of animals, clothes, etc..”로 뜻풀이되었다.

⁷ “말모이”에 “감정”은 “감알게 된 것”으로 뜻풀이되었다.

되었는데 색채 명사의 의미 분석과 기술상에서 사전들 중에서 제일 체계적으로 되었음을 볼 수 있다.

3.2.2. 뜻풀이 방식

색채 명사의 뜻풀이 방식에 대해서 국한문으로 뜻풀이한 『조선어사전』 원고와 이중어사전인 『한영대조연』에서 대역어로 뜻풀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말모이” 원고에 “감정”의 뜻풀이만 확인되었는데 “감알게 된 것”으로 기술되었다. 양성모음형인 ‘감정’은 형태적으로 대응된 양성모음형인 ‘가말다’에 의해 뜻풀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간행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 『조선말큰사전』에도 이러한 형태적 대응된 색채 형용사를 활용한 뜻풀이 방식을 주요 뜻풀이 방식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에서 비유 대상을 활용한 뜻풀이 방식, 색채 명사를 활용한 뜻풀이 방식, 대응 한자를 활용한 뜻풀이 방식을 보조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조선말큰사전』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3 사전 중에서 『조선말큰사전』은 색채 명사 표제어의 뜻풀이를 제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분석하였듯이 “말모이”에 등재된 ‘감정’의 뜻풀이 방식은 이후에 간행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표준조선말사전』, 『조선말큰사전』과 같은데 “말모이”는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컸다.

뜻풀이에 쓰인 색채 형용사에 대해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검정’과 ‘누렁’의 뜻풀이에서 형태적 대응된 파생형을 쓰지 않고 기본형을 활용하였고, ‘퍼렁’의 뜻풀이에서 ‘퍼럴다’뿐만 아니라 기본형 ‘푸르다’도 같이 활용하였다. 이와 달리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 등재된 뜻풀이에 활용된 색채 형용사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형을 활용한 ‘푸렁’과 ‘누렁’을 제외한 표제어의 뜻풀이에서 형태적 대응된 파생형 형용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말모이”에 등재된 “감정”의 뜻풀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말모이”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색채 명사의 뜻풀이에 쓰인 형용사를 살펴보면 각 사전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후에 간행된 사전은 이전에 간행된 사전보다 색채 명사에 대한 기술이 더 체계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색채 명사간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조선말큰사전』에서만 제시하였는데 색채 형용사의 사전 기술과 같이 참고어를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다루고자 하는 사전 중에서 이 사전에서만 색채 명사간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였는데 색채 명사의 사전 기술은 이전에 간행된 사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된 편이다. 앞서 형용사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참고어에서 큰말과 작은말의 정보, 센말 정보, 그리고 비표준어 정보들을 제시하였다.

4. 결론

지금까지 20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사전들에 등재된 색채어를 살펴본다 색채어에 대한 사전적 기술 변화를 밝혔다. 사전의 거시구조에 대한 색채어 표제어의 목록을 분석하였는데 색채 형용사 표제어의 표기와 주표제어와 가표제어에 대한 처리, 그리고 색채 명사 표제어의 목록과 품사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올린 색채 형용사 표제어의 표기를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기준으로 하여 발표되기 전과 후에 편찬된 사전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발표된 후에 편찬된 사전들은 표제어의 표기가 통일되었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표준조선말사전』에는 이표기를 가표제어로 많이 수록한 반면에 『조선말큰사전』에는 많이 수록하지 않았다. 전자는 맞춤법을 보급한 시기라 한글 보급용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맞춤법이 정착된 시기라 한글 보급보다 “백과성격이 띠”(박형익:2005) 사전의 역할이 더 강한 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색채 명사 표제어의 목록을 보면 모든 사전에 백색류 명사를 수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1957년까지도 해도 백색류 명사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한편, 표제어들의 형태를 살펴볼 때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은 황색류를 제외하면 남은 색채 부류에서 음성모음형만 수록하였다. 이와 달리 『표준조선말사전』, 특히, 『조건말큰사전』은 음성모음형뿐만 아니라 양성모음형과 같은 음소교체 쌍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일수록 색채 명사를 더 많이 수록하였는데 사전적 기술의 변화로 볼 수 있고 색채 명사의 형성과 정착에 대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사전들에 등재된 색채어의 뜻풀이 양상에 대해서는 뜻풀이 방식이 형용사와 명사에 따라 다르고 사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 형용사의 뜻풀이 방식에 있어 비유 대상을 활용한 방식과 색채 형용사를 활용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적으로 보면 3종 사전중에서 『조선말큰사전』은 뜻풀이 방식을 제일 일관성있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종 사전에 적용된 뜻풀이 방식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이었다. 그 중에 『조선말큰사전』은 참고어를 활용하여 표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였던 점은 당시에 간행된 사전들과 구별되고 오늘날 사전의 모습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색채 명사의 뜻풀이 방식에 있어서 3종 사전에 모두 형태적 대응된 색채 형용사를 활용하여 뜻풀이하였는데 그 중에서 『조선말큰사전』은 제일 일관성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뜻풀이 방식은 “말모이”에도 확인되었는데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은 “말모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색채 명사의 정의는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그 전에 편찬된 사전에는 “색깔의 이름”이나 “물건”만 기술되었는데 『표준조선말사전』과 『조선말큰사전』에는 “색깔의 이름”뿐만 아니라 “물감의 이름”으로도 정의하였던 점에서 차이가 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에 색채어의 출현 양상과 색채 명사의 형성 과정 재 검토 등을 더 논의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 적용된 표기법, 『표준조선말사전』에 적용된 표준어 기준과 『조선말큰사전』의 “과학 성격”(박형익:2005)을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구본관(1998),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15-50.

_____(2008), 「한국어 색채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2, 261-285쪽.

_____(2009), 「복합 색채어의 의미」, 『국어학』, 55, 173-211쪽.

기나현(2007), 「한국 고유 색채어의 의미 분석」, 『관악어문연구』, 32, 171 - 191쪽.

- 김동연(1995), 「뜻풀이로 본 국어 사전 편찬사」, 『한국어학』, 2, 75-101쪽.
- 김성대(1979), 「우리말의 색채어 낱말발 -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한글』, (164), 655-687쪽.
- 박동근(2012), 「한국어 기본말의 원형과 뜻풀이」, 『문법 교육』, 16, 111 - 139쪽.
- 박형익(2005), 「한국어 사전의 역사」, 『말과글』, 104, 14-20쪽.
- 손세모돌(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133-165쪽.
- 이선영(2006), 「후기 중세국어 색채어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 『국어학』, 47, 235-263쪽.
- _____(2008), 「近代國語 色彩語의 몇 가지 特徵」, 『어문연구』, 36(4), 131 - 151쪽.
- _____(2012), 「국어의 기본 색채어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2), 143 - 170쪽.
- 이병근(1986), 「조선광문회 편 <말모이>(사전)」, 『한국문화』, 7, 177 - 303쪽
- 이병기(2002), 「색채 명사의 발달」, 『형태론』, 4.2, 279-299쪽.
- 이승문(2000), 「국어 정도부사의 통사·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희(2011), 「한국어 색채 표현의 양상과 부류」, 『한글』, 291, 193-228쪽.